

성역활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과 외모관리행동

박 은 희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Social Face Sensitivity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Sex Role Identity

Park Eunhee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sex role identity into groups and analyze the difference of social face sensitivity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by sex role identity.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06 peopl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livi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Kyoungbuk province.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frequency, factor analysis, credibility, χ^2 -test, ANOVA, Duncan-test, and t-test.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Sex role identity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ndrogyny, masculineness, feminineness, and undifferentiation). Men in androgyny group showed the highest rate of 41.3% followed by undifferentiation(24.7%), masculineness(21.3%), and feminineness(12.7%). Women in undifferentiation group showed the highest rate of 35.9% followed by feminineness(24.4%), androgyny(23.7%), and masculineness(16.0%). Social face sensitivity were composed of four factors (consciousness of being embarrassed, social formality, other consciousness, and prestig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were composed of six factors (skin management, fashion image management, plastic surgery management, weight management, hair management, and health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cial face sensitivity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by sex role identity, ma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ub-variables of social face sensitivity factors (consciousness of being embarrassed, social formality, and other consciousness). Both of the male and female showed a significance of difference in consciousness of being embarrassed, and social formality. Ma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ub-variable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factors (fashion image management, weight management, hair management, and health management). Both of the male and female showed a significance of difference in fashion image management. Gender of twenties and thirties showed distinction between the sub-variables of social face sensitivity factors (consciousness of being embarrassed, and presti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skin management, fashion image management, plastic surgery management, weight management, and hair management).

Key Words : Sex Role Identity(성역할정체감), Social Face Sensitivity(체면민감성),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외모관리행동)

1. 서론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은 과거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해체, 탈중심화, 다원주의, 페미니즘의 등장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여성은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기 보다는 가족과 타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반해 현대 여성은 직장에서 독립성과 자기주장,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 과거와 달리 남성성의 발달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격으로 수용하게 되었다.¹⁾ 남성 역시 여성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과거에 비해 전통적인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의 의미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남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²⁾ 성별에 따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 이렇듯 사회구조에서 성역할은 서로 상반된 양극에서 우위를 볼 것이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을 함께 존재하는 양성공유를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자 하였다. 즉, 양성적 사람은 남녀 모두 성의 특성이 몸에 배어 있는 자로 남성역할과 여성역할 모두를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³⁾ Bem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양성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양성성이 자존감, 자아실현, 긍정성, 도덕적 발달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⁴⁾ 따라서 성역할은 남성, 여성 각각에 대한 행동 기대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태도와 행동 및 그에 대한 기대를 포함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는 성에 따라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이치에 맞는 성역할이었다면, 현재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성역할을 상황에 따라 남성답거나 여성다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타인에게 비쳐진 자신의 위신이나 지위가 어떠한가를 의식하는 행동으로 성역할에 따라 나타내 보이려는 의도가 다를 것으로 보여진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높여주는 행동을 하여 체면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체면은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도덕성과 능력에 따라 타인의 승인 혹은 인정에 대한 민감성의 정도에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에 적합한 성역할 기대에 따라 개인의 행동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높여주려는 정도인 체면민감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몸짱 신드롬을 통해 근육이 발달한 남성의 몸매에 관심이 증가되고 나아가 얼굴, 몸매, 옷차림 등 남성의 외모 전반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여⁵⁾ 남성들이 외모관리에 집중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성들의 외모관리는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남성의 성역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다수의 여성들은 화장, 헤어관리, 마사지나 팩의 사용, 기능성 화장품 사용, 운동 등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지만⁶⁾ 외모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윤은아, 이선재에 의하면 성역할은 미에 대한 정

의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외모나 체형에 따라 신체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성역할정체감이 반영되는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⁷⁾ 외모는 타인과 사회생활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미분화 등의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성역할 정체감과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역할정체감에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은 외모관련 연구와⁸⁾⁹⁾¹⁰⁾¹¹⁾ 의복관련 연구에서¹²⁾¹³⁾ 다수 볼 수 있지만 성역할정체감과 체면민감성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20·30대는 생활양식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생활태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다.¹⁴⁾ 이들은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있어 외모가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자신의 능력이 타인에게 비칠 때 자신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타내는 체면민감성 또한 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체면민감성과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정체감

1970년대 들어서 Bem에 의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보기보다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할 수 있는 별개의 특성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성역할은 한 개인에게 그 성에 적절하고 전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 반대 성의 특성이 부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극 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혹은 모두 낮은 것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¹⁵⁾ 즉 Bem이 주장한 양성성의 개념은 누구나 타고난 성과 관련없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근거를 둔다.

성역할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 안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로 특징지워지는 일련의 특성들로 특정 성별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한정된 일련의 기대를 말한다.¹⁶⁾ 그러므로 각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요구되는 성역할에도 차이가 있으며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⁷⁾

이윤정은 성역할 정체성 요인은 2개의 남성성 요인(박력, 과묵함)과 3개의 여성성 요인(부드러움, 꼼꼼함, 싹싹함)으로 추출되었으며, KSRI(Korean Sex Role Inventory)로 측정되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여러 개의 하위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유교적인 남성관에서 중시되는 과묵하고 근엄한 성격보다는 강한 서구적 남성관이 한국사회에서의 남성성을 정의하는데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적 특성인 부드러운 또는 꼼꼼한 성격특성에 대해서도 남성들이 상당히 수용적으로 보인다고 하였다.¹⁸⁾ 구자명,이귀영은 남성성 성향과 여성성 성향이 높을수록 화장의 성적 매력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화장 관심에서 높았다. 남성성이 높을수록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자신의 화장에 만족하는 정도에서 높았다. 양성성 유형이 심미성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성 유형이 심리적 의존성에서 높게 나타났다.¹⁹⁾ 김용숙은 남성성이 높은 양성적 집단과 남성적 여성집단은 여성이 여성임을 포기하고 남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체계에 융통성있게 적응하는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⁰⁾ 구양숙,이영주,추태귀는 남성들의 성역할 태도 연령 집단 구성비에서 양성적 집단은 2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30대의 비율은 매우 낮았고, 남성적 집단은 40대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20-30대의 비율이 낮았다. 여성적 집단은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의 비율은 낮았으며, 미분화 집단은 30대와 40대의 이상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일수록 남성은 남성다워야 한다는 고정적인 관념에서 점차 남성도 여성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수용하고, 매스미디어의 영향에 의하여 남성들이 패션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메트로 섹슈얼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²¹⁾ 이렇듯 성역할정체감이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허용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대치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20·30대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체면을 의식하는 정도와 외모를 관리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체면민감성

체면은 몸을 뜻하는 체(體)와 얼굴을 뜻하는 면(面)의 합성어로,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정의된다.²²⁾ 얼굴은 내적 자기, 즉 내적 품성의 외적 표현인 동시에 외적 상징이다. 남이 자기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남이 자신의 내적 자기를 나의 얼굴을 통해 읽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²³⁾

체면의 속성에서 보면, 체면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소위 양심과 관계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사람 됨됨이라는 도덕적 인격과 연계되는 행위의 도덕적 규범이다. 우리는 도덕적 인격이 결핍된 사람을 '나쁜 사람' 혹은 '못된 놈'이라 부르며, 그 반대로 도덕적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좋은 사람' 혹은 '괜찮은 놈'이라 부른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인간으로서 도리와 도덕성에 적합한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믿을 때 떳떳한 감정을 갖게 되며, 반대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 틀에 내재된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도덕성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나쁜 사람이라는 자의식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²⁴⁾ 이런 부끄러움은 체면이 손상되었을 때 자괴성 부끄러움과 창피성 부끄러움으로 나눌 수 있다. 자괴성 부끄러움은 여자가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슬픈 얼굴을 보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에 해당되는 자신의 외적 행동을 스스로 보고 그러한 행동이 도리에 어긋났다는 인식을 통해 자신의 내적 품성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을 때 생기는 감정의 한 가지 형태로 일종의 자기부끄러움이다. 또한 창피성 부끄러움은 남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고 느끼는 부끄러움으로 흔히 남에게 한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도리에 어긋났다고 느꼈을 때 나타나는 부끄러움으로 일종의 남부끄러움이다.²⁵⁾²⁶⁾

체면민감성은 평상시 사람들이 체면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이다. 또한 체면민감성은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분, 지위나 인격 혹은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 및 사회적 불안에 대한 민감성의 정도를 의미한다.²⁷⁾ 따라서 자신의 수행이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민감하게 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²⁸⁾

박상룡, 김선아는 형식이나 격식을 중요시할수록 개성이나 유행보다는 고품질추구적 소비행동을 많이 하였고, 유행추구 소비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많이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⁹⁾ 정명선, 김혜진은 타인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기분이 상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은 자괴의식성 체면이 높을 경우 외제 유명 브랜드나 고가 제품을 이용하여 자기 과시를 하고자 하며, 타인에게 비취지는 자신의 모습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격식이나 예절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패션 명품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관습과 가치 체계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위, 신분, 권위, 격식이나 예를 과시하기 위해 체면을 중시해왔고, 이러한 체면 의식이 오늘날 자신의 우월감이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패션 명품 소비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³⁰⁾

따라서 일반적으로 체면이 사람의 도덕성과 능력의 성숙과 고양을 지향하는 자기 완성 욕구와 남으로부터의 승인과 인정을 받으려는 사회적 성취 욕구라는 두 측면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적 성취 욕구가 강한데서 체면 의식이 발달되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게 될 때 체면 의식이 높아진다고 밝혔다.³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면민감성은 소비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인을 의식하고 남들 앞에서 격식을 차려서 행동하는 체면 의식의 정도와 성역할정체감과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 기인하여 현재보다 더욱 아름다우며, 젊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외모관리행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기 위해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³²⁾ 따라서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하는 피부관리, 상황에 적합한 옷차림, 성형, 체중관리, 헤어관리, 건강관리를 의미한다.

양성성 유형을 지닌 남녀 청소년들은 다른 성역할 유형에 비해 의복관심이 높고 의복과시성과 안락성을 중시하는 반면 동조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³³⁾ 20대 여성들은 외모관리행동으로 화장이나 피부관리를 많이 하였다.³⁴⁾ 또한 이윤정은 외모관리에 관심이 많은 남성은 특별히 더 여성적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각된 남성성이 높은 사람이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메트로섹슈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여성적인(또는 동성애자들의) 외모코드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여성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성이 강하다고 하였다.³⁵⁾

김용숙은 성인여성들의 양성적 집단은 자신의 외모 관심과 외모 매력에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나, 성역할 정체감 미분화 집단의 신체이미지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아주 낮았다. 그리고 남성성이 높은 양성적 집단과 남성적 여성 집단은 여성이 여성임을 포기하고 남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체계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³⁶⁾ 김현정, 이명희는 피부관리는 양성성 집단의 여자가 가장 많이 하였으며 양성성 집단의 남자는 의복관리와 체중관리를 가장 많이 하였다. 헤어관리는 남녀 모두 양성성 집단에서 가장 많이 하였다.³⁷⁾ Park은 남성은 양성성 집단에서 옷차림, 피부관리, 체중관리, 건강관리, 헤어관리를 가장 많이 하였다. 여성은 양성성 집단에서 옷차림, 건강관리를 가장 많이 하였고, 건강관리는 남

녀 모두 양성성 집단에서 가장 많이 하였다. 또한 미분화 집단의 남성은 옷차림, 체중관리를 가장 적게 하였고, 양성성 집단의 남성은 건강관리를, 여성성 집단의 남성은 헤어관리를 적게 한다고 하였다.³⁸⁾

따라서 외모관리를 할 때 20·30대는 청소년보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주관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고, 40대보다는 외모관리에 대한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성역할정체감을 분류한다.
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인구통계적 변인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 외모관리행동과의 차이를 알아본다.
4. 성별, 연령에 따른 체면민감성, 외모관리행동과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 306명으로서 남성 150명(49.0%)과 여성 156명(51.0%)이었고, 연령분포는 20대 143명(46.7%), 30대 163명(53.3%)이었다. 직업분포는 학생이 38명(12.4%), 전업주부 29명(9.5%), 회사원 154명(50.3%), 전문직 25명(8.2%), 생산직 60명(19.6%)으로 회사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5월에 예비조사를 통하여 질문지를 검증한 후, 6월 5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330부 중 320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06부를 최종 자료에 사용하였다.

SPSS PC+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ANOVA, Duncan, χ^2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질문지에 의한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역할정체감(Sex role identity)은 개인의 자아 속에 남성적 역할이나 여성적 역할과 연합된 역할을 수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진경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KSRI: Korean Sex Role Inventory)의 남성성 20문항과 여성성 2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³⁹⁾ KSRI(Korean Sex Role Inventory) 척도에서 다음의 문항들이 현재의 당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점수로 계산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성 평균점수(M=3.17)와 여성성 평균점수(M=3.27)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20·30대 성인을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 양성성의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은 양성성(32.4%), 미분화(30.4%), 여성성(18.6%), 남성성(18.6%) 순으로 나타났다.

체면민감성(Social face sensitivity)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 받거나 관찰되어 질 수 있다는 의식의 정도를 말한다. 선행연구를⁴⁰⁾⁴¹⁾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1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커질수록 체면민감성이 긍정적이다.

외모관리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은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하는 헤어관리, 피부관리, 메이크업, 체중조절을 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 상황에 적합한 옷차림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⁴²⁾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23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커질수록 외모관리행동이 긍정적이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성별, 연령, 직업 등 3문항이었고, 단순선택형으로 구성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성역할정체감 분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인구통계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Table 1) 성별, 연령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20·30대 성인들의 성역할정체감에서, 양성성 집단은 믿음직하고 의지가 강하면서 부드럽고 상냥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고, 미분화 집단은 의지력과 추진력이 낮으며 부드럽거나 섬세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성성 집단은 결단성이 있고 추진력이 높고, 여성성 집단은 감정이 섬세하고 유순한 전통적인 여성의 성격을 가진다. 남성의 경우, 양성성은 41.3%로 가장 높았고, 미분화는 24.7%, 남성성은 21.3%, 여성성은 12.7%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미분화는 3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여성성 24.4%, 양성성 23.7%, 남성성 16.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자신감과 의지력이 약하며 친절하거나 순종적이지 못한 미분화 집단의 여성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성별에서 남성은 양성성 집단에서 높고, 여성은 미분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점차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긍정성을 받아들여 양성성의 빈도가 높은 반면에, 여성은 긍정성보다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미분화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 20대는 양성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 여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미분화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양성성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 학생은 양성성이, 전업주부는 여성성과 양성성이, 회사원은 미분화와 양성성이, 전문직은 양성성이, 생산직은 미분화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2. 체면민감성, 외모관리행동의 요인구조

1) 체면민감성의 요인구조

체면민감성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요인 1은 나는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민감한 편이고,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편이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창피의식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이 창피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정도이다. 요인 2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교양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남들 앞에서 행동할 때 격식을 차린다는

<Table 1>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인구통계적 변인

n(%)

성역할정체감 인구통계적 변인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계	χ²
		99(32.4)	57(18.6)	57(18.6)	93(30.4)	306(100)	
성별	남성	62(41.3)	32(21.3)	19(12.7)	37(24.7)	150(100)	17.75***
	여성	37(23.7)	25(16.0)	38(24.4)	56(35.9)	156(100)	
연령	20대	46(32.2)	27(18.9)	36(25.2)	34(23.8)	143(100)	10.56*
	30대	53(32.5)	30(18.4)	21(12.9)	59(36.2)	163(100)	
직업	학생	13(34.2)	7(18.4)	11(28.9)	7(18.4)	38(100)	10.66
	전업주부	9(31.0)	5(17.2)	9(31.0)	6(20.7)	29(100)	
	회사원	49(31.8)	30(19.5)	25(16.2)	50(32.5)	154(100)	
	전문직	9(36.0)	5(20.0)	4(28.0)	7(28.0)	25(100)	
	생산직	19(31.7)	10(16.7)	8(13.3)	23(38.3)	60(100)	

*p<.05, ***p<.001

<Table 2> 체면민감성

요인	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값	누적 분산(%)	Cronbach's α (평균)
창피 의식형	나는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민감한 편이다.	.81	3.08	20.53	.86 (3.26)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편이다.	.74			
	나의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비칠까 염려된다.	.68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의식하는 편이다.	.68			
	남에게 부탁할 때 거절당할까 걱정된다.	.66			
사회 격식형	사석에서 교양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82	3.04	40.76	.83 (3.51)
	남들 앞에서 행동할 때 격식을 차린다.	.81			
	남들 앞에서 예절을 중시한다.	.79			
	대인관계에서 예절과 격식은 중요한 덕목이다.	.68			
	남들과 대화할 때 말을 실수할까봐 조심스럽다.	.59			
타인 의식형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까 의식한다.	.76	1.96	53.84	.66 (3.16)
	내가 제 때 승진하고 있는지 중요하다.	.74			
	내가 입은 옷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의식한다.	.67			
위신형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위신 때문에 하게 된다.	.81	1.87	66.27	.75 (2.92)
	나는 위신 때문에 부탁을 망설인다.	.80			

내용으로 구성되어 “사회격식형”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3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까 의식하고, 내가 제 때 승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타인의식형”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위신

때문에 하게 되고 위신 때문에 부탁을 망설인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위신형”이라 명명하였다. 4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86, 요인 2는 .83, 요인 3은 .66, 요인 4는 .75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6.27%였다.

2) 외모관리행동의 요인구조

외모관리행동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요인 1은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크림을 바르고, 피부 관리를 위해 매일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피부관리”라 명명하였고, 요인 2는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옷차림을 확인하며, 의복을 구입할 때 자신이 소유한 의복과 잘 어울리는 것을 산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패션이미지관리”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고, 연예인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하고 싶어

진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성형관리”라 명명하였고, 요인 4는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으며,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을 쓴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체중관리”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머리를 자주 드라이하고 머리손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헤어관리”라 명명하였고, 요인 6은 정기적으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으며,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편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건강관리”라 명명하였다. 6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85, 요인 2는 .82, 요인 3은 .83, 요인 4는 .76, 요인 5는 .79, 요인 6은 .71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6.52%였다.

<Table 3> 외모관리행동

요인	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값	누적 분산(%)	Cronbach's α (평균)
피부 관리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다.	.75	3.19	13.86	.85 (2.67)
	피부 관리를 위해 매일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한다.	.74			
	노화방지를 위해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한다.	.70			
	얼굴에 피부 마사지를 자주한다.	.67			
	전문 스킨케어샵 등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적이 있다.	.62			
패션 이미지 관리	나는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옷차림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77	2.82	26.13	.82 (3.35)
	나는 의복을 구입할 때 내가 소유한 옷과 잘 어울리는 것을 산다.	.72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71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67			
성형 관리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80	2.67	37.74	.83 (2.75)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하고 싶다.	.79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74			
	외모 향상을 위한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다.	.63			
체중 관리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다.	.77	2.32	47.85	.76 (2.67)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을 쓴다.	.68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위해 여러 가지 다이어트방법을 사용한다.	.67			
	나는 신체 사이즈에 민감한 편이다.	.60			
헤어 관리	나는 머리를 자주 드라이하고 다닌다.	.85	2.30	57.86	.79 (2.66)
	나는 머리손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	.84			
	나는 헤어스타일링 제품인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젤 등을 자주 사용한다.	.69			
건강 관리	정기적으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는다.	.80	1.99	66.52	.71 (2.62)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편이다.	.76			
	아픈 곳이 없어도 가끔 보약을 지어먹는다.	.59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 외모관리행동과의 차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자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의 창피의식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양성성과 남성성, 양성성과 미분화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어 양성성 집단은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민감한 편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의 사회격식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성성과 미분화, 양성성과 남성성, 여성성과 미분화, 여성성과 남성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어 양성성과 여성성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교양있게 행동하려고 하며 남들 앞에서 행동할 때 격식을 차리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미분화와 남성성은 남들 앞에서 행동할 때 격식을 차리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의 타인의식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성성과 미분화, 여성성과 미분화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어 양성성과 여성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쳐질까 의식하고 제 때 승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미분화는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양성성과 여성성의 남성 집단은 개인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는가를 높게 의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의 창피의식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성과 미분화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어 여성성 집단은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까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의 사회격식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성성과 미분화, 여성성과 미분화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어 양성성과 여성성 집단이 남들 앞에서 격식을 차려서 교양있게 하려는 의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지가 강하고 따뜻한 여성이거나 정이 많은 여성은 대인관계에서는 예절과 격식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의 위신형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피부관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에서 보면, 남성은 피부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므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Table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

(N=306)

성역할정체감 체면민감성		양성성 (N=99)	남성성 (N=57)	여성성 (N=57)	미분화 (N=93)	F값
창피의식형	남	3.54 ^a A ^b	3.15 B	3.41 AB	3.12 B	3.23*
	여	3.11 AB	3.11 AB	3.42 A	3.06 B	2.72*
사회격식형	남	3.78 A	3.41 B	3.58 A	3.36 B	5.03**
	여	3.72 A	3.46 AB	3.51 A	3.23 B	6.00***
타인의식형	남	3.37 A	3.14 AB	3.32 A	2.93 B	3.87**
	여	3.23 A	3.25 A	3.22 A	2.93 A	2.63
위신형	남	3.23 A	2.88 A	2.95 A	2.88 A	2.34
	여	2.76 A	2.78 A	2.99 A	2.74 A	.96

*p<.05, **p<.01, ***p<.001

a는 집단별 평균점수, b는 Duncan test결과를 문자로 표시함(A>B)

않았고, 여성은 대부분 피부관리에 관심을 가지므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피부관리에서 남성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여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한 Park의 연구와⁴³⁾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남성 집단의 대학생 비율로 인한 차이로 보여진다. 패션이미지관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여성성과 양성성 집단의 남성은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옷차림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에 관심이 높고, 미분화와 남성성 집단의 남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옷차림에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적 집단과 여성적 집단의 남성이 사회성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여성성이 강할수록 대인관계와 경쟁력,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등이 외모관리를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됨을 보여준다고 한 구양숙,이영주,추태귀의 연구를 지지한다.⁴⁴⁾ 반면에 지각된 남성성이 높은 사람이 외모관리를 많이 한다고 한 이윤정의 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⁴⁵⁾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중관리에서 남성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여성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성성 집단인 남자는 다른 집단 보다

체중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성적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체중을 줄이고 몸매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이라고 한 구양숙,이영주,추태귀의 연구와⁴⁶⁾ Park의 연구를⁴⁷⁾ 지지한다. 외모관리행동의 체중관리가 여성에게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20·30대 여성은 마른 체형을 이상적 체형으로 생각하므로 정상 체중이라도 체중조절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김현정,이명희의 연구와⁴⁸⁾ Park의 연구를⁴⁹⁾ 지지한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헤어관리에서 남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양성성과 여성성 집단의 남성은 머리 손질을 위해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건강관리는 양성성과 남성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어 양성성 집단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남성성 집단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나 이는 Park의 연구와⁵⁰⁾ 일치한다. 즉, 남성성 집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는 연령대이므로 건강을 관리하기 보다는 자신의 체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높은

<Table 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N=306)

성역할정체감 유형 외모관리행동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F값
		피부관리	남 2.44 ^a A ^b	2.09 A	2.28 A	2.02 A
	여 3.30 A	2.94 A	3.15 A	2.93 A	2.42	
패션이미지 관리	남 3.44 A	3.02 B	3.51 A	2.87 B	6.93***	
	여 3.65 A	3.35 B	3.70 A	3.24 B	5.98***	
성형관리	남 2.79 A	2.37 A	2.66 A	2.42 A	2.55	
	여 2.94 A	2.96 A	2.77 A	2.96 A	.62	
체중관리	남 2.77 A	2.35 B	2.86 A	2.20 B	5.42***	
	여 2.84 A	2.70 A	2.84 A	2.76 A	.24	
헤어관리	남 3.07 A	2.81 AB	3.00 A	2.38 B	4.73**	
	여 2.52 A	2.48 A	2.54 A	2.43 A	.14	
건강관리	남 2.82 A	2.25 B	2.61 AB	2.54 AB	3.14*	
	여 2.85 A	2.60 A	2.60 A	2.55 A	1.51	

*p<.05, **p<.01, ***p<.001

a는 집단별 평균점수, b는 Duncan test결과를 문자로 표시함(A>B)

것으로 해석된다. 성형관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성별, 연령에 따른 체면민감성, 외모관리 행동과의 차이

성별에 따른 체면민감성, 외모관리행동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체면민감성의 창피의식형, 위신형에서, 외모관리행동의 피부관리, 패션이미지관리, 성형관리, 체중관리, 헤어관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체면민감성의 창피의식형, 위신형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하고 싶지 않아도 위신 때문에 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타인의 반응에 더욱 민감하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는 욕구가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외모관리행동의 피부관리, 패션이미지관리, 성형관리, 체중관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헤어관리에서만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은 남성보다 피부관리, 패션이미지관리, 성형관리,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남성은 외모를 관리하는데 있어 헤어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체면민감성, 외모관리행동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체면민감성의 창피의식형, 사회격식형에서, 외모관리행동의 패션이미지관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창피의식형과 사회격식형에서는 20대가 30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20대가 30대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남들 앞에서 교양 있게 행동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의 패션이미지관리에서 20대가 30대보다 높게 나타나, 20대는 30대보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옷차림을 확인하거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가 타인을 의식하며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20·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분류하고, 그 집단에 따른 체면민감성, 외모관리행동과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정체감을 분류한 결과, 믿음직하고 의지가 강하면서 부드럽고 상냥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양성성 집단의 남성은 41.3%로 가장 높았

<Table 6> 성별에 따른 체면민감성과 외모관리행동

체면민감성 외모관리행동	성별	남성(n=150)	여성(n=156)	t
		M(SD)	M(SD)	
체면민감성	창피의식형	3.35(.70)	3.17(.65)	2.42*
	사회격식형	3.57(.62)	3.45(.59)	1.79
	타인의식형	3.20(.67)	3.12(.64)	1.07
	위신형	3.03(.80)	2.81(.74)	2.53*
외모관리행동	피부관리	2.24(.92)	3.07(.72)	-8.76***
	패션이미지관리	3.22(.75)	3.47(.62)	-3.13**
	성형관리	2.59(.85)	2.91(.72)	-3.50***
	체중관리	2.55(.84)	2.79(.76)	-2.64**
	헤어관리	2.84(.94)	2.49(.81)	3.46***
	건강관리	2.60(.88)	2.64(.69)	-.43

*p<.05, **p<.01, ***p<.001

<Table 7> 연령에 따른 체면민감성과 외모관리행동

체면민감성 외모관리행동		연령	20대(n=143)	30대(n=163)	t
			M(SD)	M(SD)	
체면민감성	창피의식형		3.37(.68)	3.16(.66)	2.60*
	사회격식형		3.60(.60)	3.43(.60)	2.65**
	타인의식형		3.23(.63)	3.10(.67)	1.75
	위신형		2.88(.80)	2.95(.76)	-.74
외모관리행동	피부관리		2.67(.92)	2.66(.92)	.09
	패션이미지관리		3.52(.69)	3.19(.68)	4.28***
	성형관리		2.81(.79)	2.70(.80)	1.19
	체중관리		2.76(.83)	2.60(.79)	1.77
	헤어관리		2.70(.90)	2.62(.89)	.84
	건강관리		2.60(.82)	2.64(.76)	-.38

*p<.05, **p<.01, ***p<.001

고, 의지력과 추진력이 낮으며 부드럽거나 섬세하지도 못한 성역할정체감 미분화 집단의 남성은 24.7%, 결단성이 있고 추진력이 높은 남성성 집단의 남성은 21.3%, 감정이 섬세하고 유순한 전통적인 여성인 여성성 집단의 남성은 12.7%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미분화 집단이 3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여성성 24.4%, 양성성 23.7%, 남성성 16.0%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감과 의지력이 약하며 친절하거나 순종적이지 못한 미분화 집단의 여성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성역할은 그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대치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체면민감성 요인은 창피의식형, 사회격식형, 타인의식형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리행동 요인은 피부관리, 패션이미지관리, 성형관리, 체중관리, 헤어관리, 건강관리로 나타났다.

셋째,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의 차이에서, 양성성 집단의 남성은 체면민감성의 창피의식형, 사회격식형, 타인의식형에서 높았다. 즉 믿음직하고 의지가 강하면서 부드럽고 상냥한 성격을 지닌 남성은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아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남들 앞에서 격식을 중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였다. 섬세하고 어질고 감정이 풍부한 남성은 남들 앞에서 교양있게 행동하려고 하였으며 타인의 눈

치를 많이 보았다. 반면에 결단성이 있고 추진력이 많은 남성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격식을 차리는 행동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의욕적이면서 다정다감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양성성 집단과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여성성 집단의 여성은 남들 앞에서 예절을 중시하였다.

넷째,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에서, 남성의 경우, 패션이미지관리, 체중관리, 헤어관리, 건강관리와 여성의 경우, 패션이미지관리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역할정체감의 미분화 집단의 남성은 패션이미지관리, 체중관리, 헤어관리에 대하여 다른 집단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옷차림이 중요하고 의복 구입 시 자신이 소유한 옷과 잘 어울리는지 고려하는 20·30대는 남녀 모두 여성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옷차림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며 체중에 관심이 높고 머리 손질에 특별히 관심이 높은 20·30대 남성은 여성성과 양성성 집단이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체면민감성과 외모관리행동에서 차이를 근거로 하여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조화롭게 발달된 양성성의 남성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남들 앞에서 격식을 차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옷차림에서도 주변 상황에 어울리게 착용하여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체형에서 남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면서

도 여성성을 나타낼 수 있는 패션 연출을 제안한다. 여성성이 높은 여성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남들 앞에서는 교양있게 행동하려고 하므로 품위가 있으면서 자신의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여성다운 옷차림을 연출하도록 제안한다. 미분화 집단의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높여주는 행위에 관심이 낮으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낮아서 외모관리행동에서도 낮게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적합한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역할에 따른 사회적응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과거에 억압된 여성과 기득권을 잡고 있던 남성의 성역할에서 현재 사회문화에 적합한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조화롭게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의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대의 폭을 넓혀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1) 장수지(2011), "문화와 성역할정체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간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pp.31-45.
- 2) 이영주(2011), "남성의 연령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가방 선호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1), pp.82-90.
- 3)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pp.155-162.
- 4) Bem, S. L.(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 for assessing psychology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2), pp.196-205.
- 5) 이윤정(2007),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의 동기 에 관한 연구-성역할 정체감과 의복추구혜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4), pp.551-562.
- 6) 정명선(2003),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3), pp.165-179.
- 7) 윤은아, 이선재(2000), "성역할정체감이 겉옷·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4(2), pp.152-163.
- 8) 이윤정, op.cit., pp.551-562.
- 9) 구양숙, 이영주, 추태귀(2011), "남성들의 외모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III)",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2), pp.226-233.
- 10) 남수정(2011), "성역할정체성,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메트로섹슈얼 소비",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pp.91-102.
- 11) 김현정, 이명희(2010),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신체노출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 60(3), pp.99-109.
- 12) 이윤정(2005), "20-30대 남성 소비자들의 의복 쇼핑성향과 성역할 정체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9), pp.27-40.
- 13) 윤은아, 이선재, op.cit., pp.152-163.
- 14) Park, E. H.(2012), "A study on sociocultural attitude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accordance with gender role identity",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3), pp.107-124.
- 15) Bem, S. L., op.cit., pp.196-205.
- 16) 구자명, 이귀영(2002),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 행동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6(2), pp.124-136.
- 17) 이영주, op.cit., pp.82-90.
- 18) 이윤정, op.cit., pp.27-40.
- 19) 구자명, 이귀영, op.cit., pp.124-136.
- 20) 김용숙(2009), "성인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신체 및 화장이미지", *복식*, 59(3), pp.55-66.
- 21) 구양숙, 이영주, 추태귀, op.cit., pp.226-233.

- 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자료검색일 2012.08.21, 자료출처 <http://www.korean.go.kr>
- 23) 최상진, 김기범(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pp.185-202.
- 24) Ibid., pp.185-202.
- 25) 최상진, 김기범(1998), “체면의 내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학술 발표 논문집*, pp.559-577.
- 26) 이충원, 김효창(2006), “체면민감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불안이 불확실성 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3), pp.17-30.
- 27) 김양하(2005), “상징소비의 문화·사회적 의미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9.
- 28) 김경호(2002), “자아존중감, 체면민감성과 자기 제시 전략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 29) 박상룡, 김선아(2007), “체면민감성이 웨딩미용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6), pp.589-594.
- 30) 정명선, 김혜진(2009), “체면민감성, 과시 소비 성향, 패션 명품 선호도가 패션 명품 복제품의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7(2), pp.189-202.
- 31) 김양하, op.cit., p.19
- 32) 김정애, 김용숙(2001), “여고생의 신체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4(1), pp.55-73.
- 33) 이미숙(2008),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이 자아 존중감과 의복행동 및 선호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pp.707-721.
- 34) 김선희(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pp.99-108.
- 35) 이윤정, op.cit., pp.551-562.
- 36) 김용숙, op.cit., pp.55-66.
- 37) 김현정, 이명희, op.cit., pp.99-109.
- 38) Park, E. H., op.cit., pp.107-124.
- 39)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pp.82-92.
- 40) 박상룡, 김선아, op.cit., pp.589-594.
- 41) 정명선, 김혜진, op.cit., pp.189-202.
- 42) Park, E. H., op.cit., pp.107-124.
- 43) Ibid., pp.107-124.
- 44) 구양숙, 이영주, 추태귀, op.cit., pp.226-233.
- 45) 이윤정, op.cit., pp.551-562.
- 46) 구양숙, 이영주, 추태귀, op.cit., pp.226-233.
- 47) Park, E. H., op.cit., pp.107-124.
- 48) 김현정, 이명희, op.cit., pp.99-109.
- 49) Park, E. H., op.cit., pp.107-124.
- 50) Ibid., pp.107-124.

접수일(2012년 9월 7일),
 수정일(1차 : 2012년 9월 28일, 2차 : 10월 19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2일)